Daily Auto Check 2020. 8.19(Wed)

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<mark>김준성</mark> 02.6454-4866 joonsung.kim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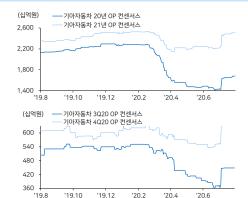
RA 이다빈 02.6454-4882 dabin.lee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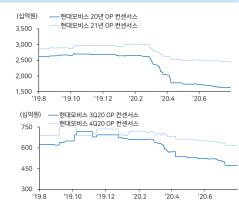
meritz 메리츠증권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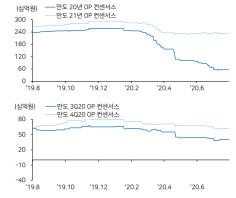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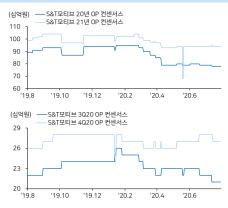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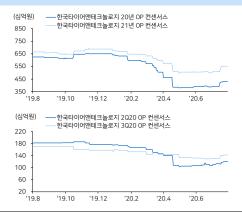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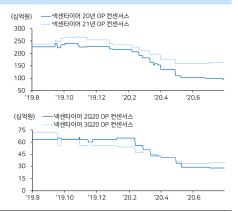
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전용 전기차 '아이오닉5' 내년 4월 출격 (전자신문)

현대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는 현대차 '아이오닉5'와 기아차 '이매진'이 각각 내년 4월, 8월에 국내 출시. 두 모 델의 차체 크기는 '싼타페'와 비슷하지만 실내 공간이 대형 SUV '펠리세이드'와 맞먹는 게 가장 큰 특징. https://bit.ly/3l1fxhY

'민트 디자인 적용?' 제네시스 첫 EV 크로스오버(JW) 테스트카 포착. 내년 출시 예정 (M오토데일리)

제네시스 브랜드 첫 플랫폼 적용 BEV 'JW EV(프로젝트명)' 프로토타입 테스트카가 최초로 포착됨. 제네시스가 선보일 첫 전기 차가 해외에서 위장막을 씌운채 주행테스트 중인 모습이 포착됨.

정부, 차세대 'K-배터리' 개발 지원 나선다…현대차 탑재 추진 (전자신문)

정부가 차세대 'K-배터리' 개발 지원에 나섬.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핵심 기술인 LG화학의 '리튬황 배터리', 삼성SDI의 '전고 체 배터리' 개발 시점을 최대한 당기기 위한 총력전. https://bit.lv/3iTizXM

화웨이, 자동차 부품ㆍ시스템 사업 가속화 (ZD넷코리아)

화웨이가 신규 사업 영역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사업에 정식으로 뛰어듬. 화웨이는 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 자사 경 영범위에 '자동차 부품 및 스마트 시스템 연구개발, 생산, 판매와 서비스'를 추가.

현대차, 싱가포르에 연산 3만대 규모 EV 전용 공장 설립하나? (M오토데일리)

최근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타임즈는 현대차 싱가포르 판매법인인 코모토 모터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대차가 싱가포르 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보도. https://bit.ly/3g9PEJ9

현대차 美법인, 닛산 출신 마케팅 전문가 영입 (이데일리)

현대차 미국법인(HMA)이 일본 닛산자동차 출신 세일즈 ·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 시장 공략에 나섬. 현대차 미국법인은 닛 산 출신 프레드 드페레즈 부사장을 신임 제품관리 및 판매기획 부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힘.

"트럼프 대신 캘리포니아"…5개 자동차사, 연비 강화 약속 (연합뉴스)

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5개사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규제를 준수키로 약속. 포드와 혼다, BMW, VW, 볼보 등 5개 제조사는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. https://bit.lv/3kQxob4

도요타, 아마존과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(조선비즈)

도요타자동차가 아마존과 손잡고 자율주행차, 커넥티드카 등의 개발에 활용할 주행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. 도요타는 아마존웹서비스(AWS)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커넥티드 카의 정보 기반으로 활용 https://bit.ly/34gfj0f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담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 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